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삶



이호리 인터뷰 |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특집]현장에서 | “알을 낳는 닭의 삶은 가혹했다.”

다 함께 실천해요 | 인도적 달걀 선택법!

기획리포트 | 육식에 관한 불편한 진실

책의시선 | 라이카야, 안녕!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 즐거운 외출을 위한 반려견 기본 훈련

세상읽기 | 로드킬 쿠티르, 자동차에 치어 죽은 동물로 만든 옷을 팝니다

Animal&Culture |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겨울호 2012. 2 No. 15

“다 읽으신 후 이웃이나 친구와 나눠 보면 더 좋습니다.”

계간지
[함께 나누는 삶]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발행일
2012년 2월 27일

편집
심샛별

진행
조은희

교정/교열
이정애(재능기부)

등록번호
성동바00007

디자인, 제작
동방기획

함께 나누는 삶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뜻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홈페이지 www.animals.or.kr
트위터 @animal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animalkorea

※ 표지사진 촬영 : 포토그래퍼 안상미 (오보이)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 행당동 희망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효리님. 관련 소식은 4~5페이지의 인터뷰에 실려 있습니다.

CONTENTS

1 여는 글

동물과 환경, 인간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견생역전

똥순이네 라인의 행복한 입양이야기

4 INTERVIEW

이효리 -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6 기획리포트

육식에 관한 불편한 진실

8 현장에서

"알을 낳는 닭의 삶은 가혹했다."

10 다 함께 실천해요

인도적 달걀 선택법!

11 함께 나누는 삶

어느 래퍼의 똥돋는 소리

12 책의 시선

라이카야, 안녕!

14 세상읽기

로드킬 쿠티르, 자동차에 치어 죽은 동물로 옷을 팝니다

15 Animal & Culture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16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즐거운 외출을 위한 반려견 기본 훈련

19 활동소식

2011년 11월 ~ 2012년 1월

21 입양해주세요

일곱 빛깔 아기 아옹이들이 가족찾가~

22 행당포토뉴스

행당동 삼총사의 끈끈한 우정

23 십자말 퀴즈

간단하고 재미있는 동물 상식

24 후원해주세요



동물과 환경, 인간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2년 행당동에서는 보호 중인 유기견 유기와 찰스가 심하게 싸우는 바람에 별거(?)에 들어가는 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시설이 비좁다 보니 가족끼리 다투는 사례도 점차 늘어납니다. 이런 때마다 얼른 보육원을 지어야 한다는 마음이 급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올해에는 동물보육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 지어져 동물들이 자리를 잡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쁜 한편, 몹시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젖소 송아지들이 얼마 살아보지도 못한 채 고깃갑으로 내몰리게 된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에게 공급할 우유를 짜기 위해 젖소는 계속

출산을 반복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새끼들 중 우유를 생산할 수 없는 수송아지들은 육우로 키워져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가 수입 쇠고기에 밀려 시장성이 떨어지니 어리디 어린 송아지가 일찌감치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들이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풍경은 이제 광고에 서나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육류 과소비를 지향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고기는 공장식 축산을 통해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서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 받는 것은 물론 환경도 극심하게 오염되며 항생제 남용 등으로 인해 식품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류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여 이런 모든 폐해들을 줄여나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기 소비 축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정부는 때면 동물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해법만 제시하고 있으니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송아지 고기가 일반화되고 여기에 소비자 입맛에 길들여지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축산업에서도 서구식으로 본격화된 송아지 상차 사육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에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2012년 2월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발효로 인해 동물 학대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동물 학대 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 겨우 3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움직인 것은 높아진 국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 파동을 비롯해 올해 일어날 여러 문제를 대할 때에도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들, 그리고 동물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우리 사회를 더 빠르게 성장시켜나갈 수 있게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



조희경 | 상임 대표

'도덕적으로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으며, 잔혹한 식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아지 고기'를 아세요?



연하고 청백한 색깔의 최고급 송아지 고기(veal)를 생산하기 위해 송아지는 목에 꼭 맞는 조그만 상자 우리에 갇혀서 별도 보지 못하는 채로 키워집니다. 운동을 하면 연한 고기가 생산되지 않으

므로 근육을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 한 바퀴 돌지도 못하게 사슬로 목을 묶어 놓고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지도 돌아눕지도 걷지도 못하는 송아지가 먹있어야 할 어미소의 젖은 사람을 위해 팔려 나가고 대신 '철분을 뺀 고단백 유동식'이 지급됩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타민, 미네랄이 첨가되고 추가로 성장촉진제가 포함된 탈지분유를 먹으며 하얗고 연한 살코기를 위해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송아지는 어미젖을 뺏아보지도 못한 상실감, 반추동물인 데도 씹지 못하는 스트레스, 만성적인 빈혈,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 비정상적인 열 방출로 인해 심각한 고통만 받으면서 그 짧은 생을 보내게 됩니다. 단순히 부드럽고 맛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송아지 고기를 즐겨 찾는다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송아지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똥순이네 라인의 행복한 입양이야기

윤정임 실장 | 동물자유연대

2011년 1월, 유난히도 추위가 매서웠던 날 동네를 떠돌아 다니던 유기견이 쓰레기더미 안에 새끼강아지들을 낳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호자가 원래도 밥을 챙겨주던 한 마리는 어떻게든 챙겨보겠지만 새끼들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죠.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어린 강아지들의 입양 진행을 도와드리고 어미 개는 더 이상 길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미와 강아지들을 떼어 놓는 것이 정말 마음 아팠지만 이 유기견 가족이 처한 상황과 이미 포화 상태여서 유기견 가족 전체를 받을 수 없는 동물자유연대 보호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어미 똥순이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새끼 강아지들의 입양은 생각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덩치는 작고, 콧줄이 있는 녀석들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복덩이들이죠. 그런데 강아지들의 입양이 결정된 후 어미 똥순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똥순이가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어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장사상충 치료라는 것이 퇴원 후에도 안정된 공간에서 돌봐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똥순이를 동물자유연대의 식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세 녀석 모두 어찌나 복이 많은지 곧 입양을 갖고, 요즘도 행복한 일상과 신나는 여행기가 입양 후기 게시판을 점령하며 행복 바이러스를 마구마구 전파하고 있습니다. ☺

* 똥순이를 입양한 이다영님

똥순이가 저희 집에 온 지도 벌써 반 년, 처음의 소심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외출했다 돌아오면 짹짹 짹 짹 거러처럼 뛰면서 반가워합니다. 산책을 가자는 말에 먼저 대문 앞에 나가서 앉아 있고, 간식봉지를 물고 와서는 제 발 밑에 가져다 두고서 꼬리를 흔들며 쳐다보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더 기쁜 것은 똥순이의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걱정스러운 마음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던 주변 사람들이 일단 똥순이를 만나고 나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모르는 분들께서도 '아유~ 좋은 일 하시네요'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데 저희는 반대로 똥순이가 '좋은 일'을 하러 우리를 찾아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똥순이가 저희에게 주는 사랑으로 가정에 사랑이 충만해 졌으니까요. 똥순이가 앞으로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온기로 충만하게 채워줄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
누렁이를 입양한
김승영님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렁이와의 연은 먼저 보낸 고향 이와 못다한 연을 이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맺는 수많은 연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만 지칭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누렁이와 함께 한강에서 오리배도 타고, 강화도 동막 해수욕장 갯벌도 누비고, 전등사에도 올라가며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때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누렁이와 제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누렁이와 저희는 힘들고 지칠 때 서로가 위안이 되어 같은 곳을 향하는 참 좋은 인연을 오늘도 이어 가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물건들 사듯 동물을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일이 하루 빨리 없어져서 저와 누렁이가 인연을 이어가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뜻 깊은 연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
아지를 입양한
이미경님

2월 5일이면 입양 1주년을 맞는 아지네입니다. 아지는 똥순이의 말이자 저희 집의 막둥이입니다. 우리 아지는 성격이 소심하지만 발바리인지라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덩치만큼이나 무한히 큰 사랑을 품고 저희 집을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지요. 저희 집에서 아지는 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지를 위해 온 가족이 다 함께 강화도의 애견 펜션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복덩이 아지 덕분에 그때 쓴 후기가 좋았는지 같은 펜션에 다시 한번 갈 기회가 생기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아지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등백 만들어 올 생각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유기동물 입양에 동참하셔서 저희 가족처럼 큰 기쁨과 사랑을 누리보세요.





이효리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글 심생별 전략기획국장 | 동물자유연대 사진 안상미 | 오보이



그냥 어려서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동물을 키우면서 애착이 더욱 커지게 되고 알면 알수록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걸 알게 되어 동물보호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가수 이효리씨. 동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직은 너무 적고 미약해서 나라도 먼저 시작하면 망설이던 분들이 좀 더 용기를 얻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동물보호 운동을 하고 있다.

“동물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난 연말에 동물자유연대 직원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호소 관련 기금 모금을 한다고 하기에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미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보호소도 직접 봤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호소에서 직접 봉사도 하고 있으니 더 나은 보호소에 대한 열망이 커졌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하와이에 있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보호소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드넓은 초원에 마당도 널을 뿐 아니라, 동물

들을 하루에 세 번 산책도 시켜 주고요. 그 뿐만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보호소는 방마다 TV도

있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동물 보호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외국 보호소의 경우 물리적으로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유기된 동물들이 일반 가정인 가정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 교정이 필요하다면 행동 교정 훈련도 받는다. 말하자면 일상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입양을 갔을 때 더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터뷰가 이뤄진 이날은 마침 이효리씨가 동물자유연대의 행당동 보호소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 날이었다. 이날 만났던 수많은 개, 고양이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개로 복남이를 꼽았다. 망치로 맞아서 사람에게 잡아 먹히기 직전에야 구조된 복남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복남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잔하단다.

복남이는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번 유기된 동물이라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선지 입양되는 확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그녀는 동물을 찾기 전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런 개가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저런 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름이 한 번 있었던 동물들이기 때문에 다시 보듬어 주고 사랑해주면 주인이 싫어할 것 같은 짓을 더 안 하려고 해요. 더 주인을 따르려고 노력하죠. 편견을 버리고 더 보듬어줬으면 해요. 순심이는 '손!', '앉아!' 같은 것도 할 줄 알고 오줌도 잘 가려요."

순심이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보호 동물들이 행당동 보호소에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 어쩌면 이웃 간의 문제였는지, 혹은 가족 간의 문제였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경제적인 이유였는지……. 버림을 받은 동물들도, 임시로 보호를 하고 있는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다.

"사실 순심이를 키우면서 포기해야 하는 게 많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순심이 꼭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야 동을 싸니까 일찍 들어와야 하고요. 꼭 하루 세 번 산책을 다니다 보면 옷차림에 많이 신경 쓰기 힘들어서 하이힐이나 세련된 옷차림도 포기했어요."

개, 고양이뿐만이 아니다. 이효리씨는 고기를 엄청 좋아했는데 구제역과 공장식 사육에 대해 알게 되면서 육식을 줄였다. 사실 처음엔 종종 고기가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게 힘들었고, 또 패션에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라서 모피나 가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힘들었다.

"저랑 같이 동물자유연대 회원인 선배 가수 언니 한 명은 아직 모피나 악어백 같은 걸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느냐고요.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이라도 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물을 좋아한다고 하면 왜 고기를 먹느냐, 왜 가죽 제품을 입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모로 힘든 점이 있지만 그녀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건 순심이를 키우면서 얻게 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녀 간의, 아니 인간 사이의 사랑보다 더 큰 순수한 사랑에 대해 알게 해줬어요. 순심이 저의 공허했던 부분을 채워주면서 저한테는 더 여유가 생겼고요. 주변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부와 명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순심이 덕분에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도 보호소에 사료를 보내주고,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지만 그녀의 최종 목표는 뚜렷하고 원대

하다.

"우리나라에 동물 학대가 없어지고 유기동물이 없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해요. 아무리 보호소에 사료를 보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안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여론 형성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제가 직접 개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의식 변화에 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요. 어, 나 이리다 국회로 가는 거 아닌가?"라며 소탈하게 하하 웃는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식 이야기만 하듯이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동물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이효리씨.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면 동물에 관해 물어보고, 또 같이 사료도 보내고, 모피를 입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내주는데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처음에는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마다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정말 감동이라며 눈을 빛낸다. "전에 주변 사람들과 그냥 술이나 같이 먹고 그럴 때는 술 친구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활동을 같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더 끈끈한 정이나 사랑 같은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은 채식도 하고, 유기견도 입양했으며, 모피도 입지 않고, 길고양이도 돌보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화를 내거나 서운해 하지는 않는다. 이런 그녀가 끝으로 우리 [함께 나누는 삶]의 독자들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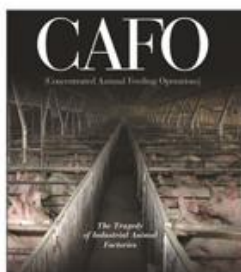
"다른 것 다 포기 못해서 아예 안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돈이 없는 분들은 봉사활동으로,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한 달에 소액기부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만원으로 달라지는 게 뭐 있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실천이 다 모이면서 의식을 바꾸고 법도 바꿀 수 있는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

육식에 관한 불편한 진실

출근길 커피에 넣은 우유부터 주말 저녁에 먹은 닭튀김까지, 우리는 동물들에게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빚을 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명절이면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 쇠고기, 돼지고기를 사이에 두고 정을 나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탁에 올라온 동물들이 도축되기 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다니엘 임호프 Daniel Imhoff
공장식 밀집사육을 심도 있게 다룬 세계적인 책 CAFO:
The Tragedy of Industrial Animal Factories 편집자



지금 소비되는 칠면조는 옛날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기리기 위해 야생에서 잡던 칠면조와는 거리가 멀다. 현대 칠면조는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라게끔 개량된 동물이며, 대형 사육장에서 곡식을 먹고 자라도록 만든 '산업화의 피조물'이다. 칠면조 수컷은 이제 스스로 일어설지도 못할 정도로 큰 가슴살을 갖게 되었고 꼬미마저도 불가능하다. 인간에 의해 창조된 이 종이 번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 수정뿐이다.

공장식 밀집 사육(CAFO,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이라는 대량 육류 생산 공장 시스템을 통해 소, 돼지, 닭 등 우리가 소비하는 동물성 식품이 생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자라는 90퍼센트 이상의 농장동물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육되며, 이러한 공장식 밀집 사육 모델은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로 전

파되고 있다. 진흙에서 구르는 돼지나 초원을 바라보는 소, 울타리 담장 위에서 목청을 돋우는 수탉, 그리고 그들과 교감을 나누는 농부와 같은 이미지는 이러한 산업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공장식 사육 시스템 안에서는 한 개의 비육장 안에 소 십만 마리, 한 우리 안에 닭 삼만 마리, 창문도 없는 창고 안에 돼지 천 마리를 수용하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동물들이 일상적으로 항생제를 투약 받으며 사육된다.

공장식 밀집 사육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충분한 양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다. 공장식 사육으로 생산된 저렴한 우유 덕분에 현대 미국인들은 매년 15킬로그램의 치즈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의 3배에 달하는 양이다. 참고로 치즈는 콜레스트롤 수치 증가와 심장병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산의 가장 큰 원천이다. 사실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

상성분을 생각하면 유제품, 육류, 가공류, 달걀 등이 꼭 이 정도로 풍부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미국에서는 해마다 십억 마리의 식품 동물이 사육된다.(편집자 주 :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인당 소, 돼지, 닭고기 소비량의 합은 정육만을 기준으로 38.8킬로그램인데 70년의 5.2킬로그램의 7.5배에 달한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육류를 보급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공장식 밀집 사육 제품의 대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바로 동물들과 지역 공동체, 납세자,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다. 대량 생산 시설은 인근 소도시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폐수를 방출하며 이렇게 방출된 하수가 주변의 수질은 물론 공기, 토양의 오염 원인이 된다(이 오염은 세금을 들여 정화시켜야 하고, 이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슬프게도 패스트푸드점이나 슈퍼마켓, 대형 마트 등에서 이렇게 생산된 동물성 식품을 구입하는 순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며 생산된 상품을 먹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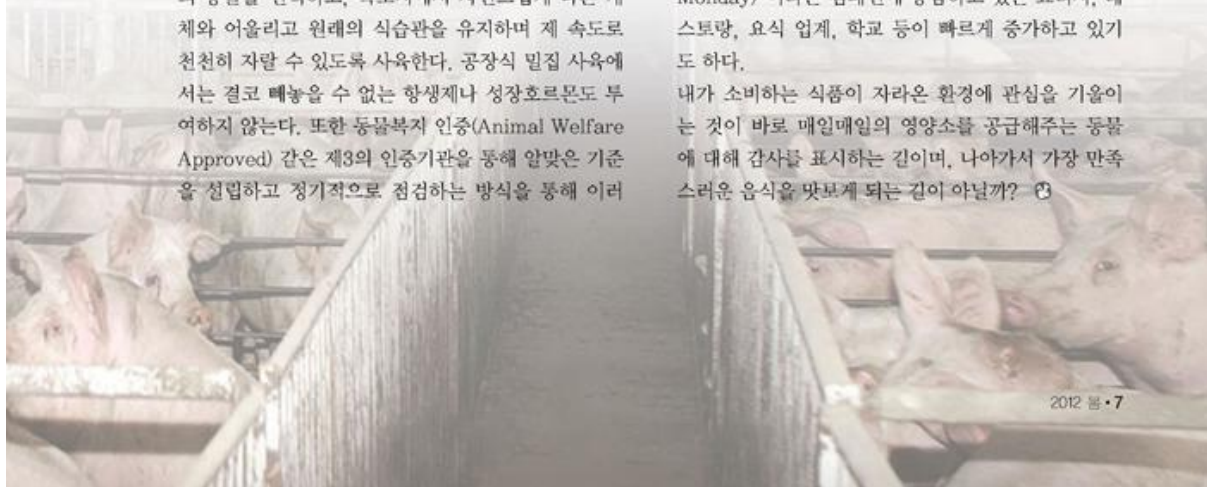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무책임함”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모두가 당장에 꼭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일부 모범 농민들은 전통적인 축산 방식도 실용적인 동시에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농부들은 환경에 맞는 종의 동물을 선택하고, 목초지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개체와 어울리고 원래의 식습관을 유지하며 제 속도로 천천히 자랄 수 있도록 사육한다. 공장식 밀집 사육에서는 결코 배놓을 수 없는 항생제나 성장호르몬도 투여하지 않는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Animal Welfare Approved) 같은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알맞은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통해 이러

한 인도적인 사육 방법을 장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증 마크를 찾아 읽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홍보 문구에 쓰이는 ‘Natural(천연의)’이나 ‘healthy(건강한)’ 등의 단어는 소비자를 호도할 수도 있다. 이 제품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를 알아보는 것이다.(편집자 주 : 우리나라의 경우 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나 농협의 안심계란 같은 인증이 있는데 이들은 위생적 생산 관리를 중점을 두는 인증일 뿐 자연에 가까운 사육 환경이나 동물의 복지는 주요 관심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2년 2월부터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제를 통해 손바닥만 한 천장 속에서 쫓잡도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알만 낳다가 평생을 보내는 닭에게 강요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을 받은 방사란 구입을 시작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윤리적 소비의 권리를 누린다면 앞으로 돼지나 소 등에도 이런 인증이 이른 시일 내에 적용될 것이다.)

공장식 밀집 사육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육류 소비량을 줄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곡류와 야채의 소비량을 늘리고, 육류와 유제품, 달걀은 환경에 이로운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만을 소량 섭취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고기 없는 월요일(Meatless Monday)’이라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요리사, 레스토랑, 요식 업계, 학교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내가 소비하는 식품이 자라는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동물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길이며, 나아가서 가장 만족스러운 음식을 맛보게 되는 길 아닐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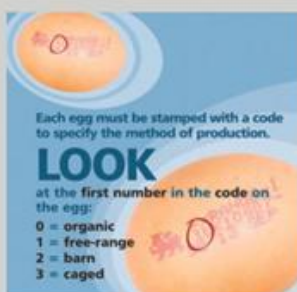


“알을 낳는 닭의 삶은 가혹했다.”

김진영·천영일동가 | 동물자유연대 농장동물팀

EU집행위원회는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며,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동물복지농장인증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주요 방사 유통업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방사 유통업이란? ‘방사’라는 말은 닭을 케이지에 가둬놓지 않고 풀어서 사육한다는 말이다. 좁은 공간에서 알을 낳는 닭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으며, 자연적 습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방사’란 제한된 공간이 아닌, 암탉의 자연적 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면적의 사육장에서 키우면서 낮 동안에는 바깥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육시스템을 말한다.



영국의 계란들은 왼쪽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분류코드를 통해 달걀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0=유기축산물

케이지에서 사육되지 않으며 사료제공부터 분뇨처리까지 생태적, 친환경적으로 사육되는 방식

1=방사사육

케이지가 아닌 평지에서 사육되고 낮동안에 바깥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하는 사육방식

2=평사사육

케이지가 아닌 사육장에서 자유롭게 풀어 키우지만,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는 사육방식

3=케이지사육

닭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기본적인 자연적 행위를 모두 억제당한다

출처: CWF 포켓가이드북 중

‘달걀공장’에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평범한 시골길을 지나 사방이 막혀있는 양철 건물에 접근을 하자, ‘쿠우우우...’ 하고 들리는, 행동하기도 힘든 집단적인 울림이 우리의 몸을 압도했다. 그것은 분명 고통에 몸부림치는 절규였고,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울부짖음이었다.

죽을 때까지 알을 낳다가 언제 생을 마감했는지 모르는 암

탉의 방치된 사체들, 바닥에서 천장까지 쌓아 올려진 배터리 케이지 속 1만5천 마리의 암탉들, 낯선 이의 방문에 깜짝 놀라 퍼드럭거리며 도망갈 곳을 찾지만 동료들 밟고 올라설 뿐 어쩔 줄 모르는 수많은 닭들의 충격적인 모습들이 ‘평범한’ 양계농장의 ‘잔혹한’ 진실이었다.

각양각색 천차만별이었던 방사유통업 농장

방사유통업 농장의 사육 실태는 천차만별이었다. 개중에는 사육밀도를 조절해 모래찹질, 산란상자, 먹이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을 보장해주는 농장이 있는 반면, 케이지에 가두지만 알았을 뿐이지 닭들을 최대한 배곡히 채워놓고 유통업만 수거해 대형업체에 납품하는 농장도 있었다.



▲ 경기도 D농장과 강원도 A농장은 알을 낳는 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닭들의 자연적 행태를 비교적 보장하고 있는 농장이었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닭들을 위한 켄트는 없었지만 켄트의 역할을 하는 디터(층책이) 있었고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상자, 모래땅질할 수 있는 비덕안etz 등이 제공된다.



▲ 충북 D농장과 전북 K농장은 비록 케이지에 갇혀 있지 않지만 행사에 닭들이 볼 디터 층도 없이 뾰뚱하게 들어차 있었다. 바닥에 흙과 알기가 깔려 있지만 지리를 잡고 놀기에도 버거운 공간이라 사실상 모래땅질과 먹이 쪼기 같은 활동은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자리가 좁아 갈 곳을 잃은 닭들은 급수대나 산란상자 등 볼리는 곳을 피해 올라갈 수 있는 곳엔 모두 올라가 있었다.



◀ 경북 S농장은 '복지계란'을 홍보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농장이다. 케이지의 면적이 넓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닭들은 케이지에 갇혀 있고, 케이지 중간에 만들어 놓았다는 켄트는 닭들이 올라간다면 케이지 천정에 부딪혀 목이나 머리가 농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뿐만 아니라 S농장은 산란을 돕기 위해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6시간 이상 연속조명, 강제된 우유주입 이상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강제로 굶기 탈강이를 시켜 산란 기간을 늘리는 것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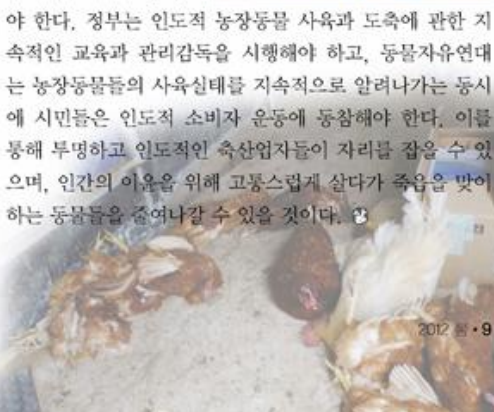
동물복지적 마인드, 좀 더 많이 성장해야

알을 낳아주는 닭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 있어서 방사유정란 농장이나 공장식 관행농장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알을 낳지 못하거나 약하고 병든 닭들을 산 채로 자루에 담아 처리하거나 목을 비틀어 완전히 죽지 않은 닭들을 사체와 함께 방치하는 것들을 보면 동물복지에는 무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2년 동물복지농장인증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앞으로 동물복지농장인증제가 실효성 있도록 잘 시

행되려면, 민간단체+정부+소비자+투명한 생산자의 네 박자가 잘 맞아

야 한다. 정부는 인도적 농장동물 사육과 도축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하고, 동물자유연대는 농장동물들의 사육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은 인도적 소비자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인도적인 축산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인간의 이윤을 위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23





인도적 달걀 선택법!



1) '방사', '자연방사', '방사란', '방사유정란'

:: 상품의 겉 표지에 '방사란'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기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방사란은 닭을 케이지에 가두지 않고 인근 방목장에 풀어놓거나, 최소한 흙 바닥을 딛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로 키우는 닭이 낳은 알입니다. 닭들의 자연적 습성을 필요한 만큼은 보장한 제품입니다.

2) 유기축산물

:: 방사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기축산물 제품들은 사료, 분뇨처리, 질병관리, 번식기법 등에서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제품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유기축산물은 꼭 '자연방사'를 통해 사육되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케이지 사육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방사란'을 선택하세요!

보통의 공장식 양계장에서 닭들은 1년에 300개에 달하는 달걀을 낳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 보다 열 배나 많은 양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달걀 소비량을 반으로 줄이고 '방사란'을 소비하시면 배터리 케이지를 이용한 '잔혹한 달걀공장'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알을 낳는 닭에게 최소한의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 방사란을 살 수 있는 곳

- 대부분의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
- 인터넷

늘 다니시는 가게에 방사란이 없을 경우 꼭 "여긴 방사란 없어요?"라고 문의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반복해서 물어본다면 방사란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게 되고,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면 일반 케이지 사육으로 생산된 저가의 계란 대신 복지형 계란을 선택하는 분들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어느 래퍼의 **포도** 맺는 소리

박하재홍 | www.rappermint.com

군 복무를 마치면 채식주의자로 살아보겠다는 나의 모호한 계획은, 틈틈이 막사에서 읽은 간디 자서전 덕분에 1년이나 앞당겨 졌다. 학창시절 영어 교과서에 실린 간디의 일화에는 분명 ‘영국인처럼 강해지기 위해 친구와 물레고기를 먹었다’ 라고만 쓰여 있어 의아했는데, 무식제판에서 그 의문은 쉽게 풀렸다. 간디는 곧바로 후회하고 먹을 거리와 정신 변화에 대한 실험을 일생 동안 즐기며 그 경험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는 것! 전체적인 내용은 꽤 지겨워 하루에 채 몇 장도 읽지 못했지만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온색 식판에 담겨 있는 뜨거운 국물에서 살덩이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하필 음식 선택에 자유가 없는 군대에서 고기를 끓였다고 결심하다니, 지금 돌이켜 봐도 뭐가 그리 급했을까 아리송하다. 아마도 그만큼 채식은 나에게 ‘힙합(Hip-hop)’ 만큼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들뜬 마음에 저만치 앞섰던 것 같다.

밥 없이 고깃덩이로 배 불리는 것만 하지 않아도

이 시대의 채식주의라 여기는 편이어서

채식에 호기심을 지닌 이들엔

“고기는 반찬일 수 있지만, 밥은 아님이다.”

정도로 조언하는 여유가 생겼다.

2001년 군대에서의 외로운 채식 생활이 끝나고 행복한 시간만이 줄줄이 나를 만났다. 채식 동호회 모임을 찾아 밥이 새도록 수다를 떨고, 종이에 가사를 적으며, 공장식 축산의 끔찍함을 토로하는 랩(Rap) 음악을 만들어 여기저기 부르고 다녔다. 그때 랩을 도와주던 한 친구는 “가사 때문에 고기를 못 먹겠어. 난 안 할래”라며 부정을 부리기도 했다. 하긴 그럴 만도 하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겠다는 광기가 솟구치던 때라서 남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고, 음악과 가사는 주제에 걸맞게 웅장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 피 속에 흐르는 잔혹한 죽음의 그림자, 내 허끝에 몸부림치다 죽어가는 거친 생명의 눈물!” 10년이 넘어 지금은 부르지 않는 곡이 되었지만 서울 명동 한 복판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속 거슬리는 랩을 쏟아 내던 때가 없었다면 나는 여태 래퍼(Rapper)로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거리의 래퍼로, 채식 동호회의 모임지기로, 사회적 기업의 일꾼으로 이십 대와 서른 즈음을 보냈다. 결혼과 함께 떠난 세계 여행 후, 이제는 고향 서울을 떠나 제주의 시골마을로 이주해 ‘힙합과 인문학’ 자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틈틈이 곡 작업과 공연을 하고 열 살 나이 반려견 순이를 돌본다. 완전 채식 요리를 더 좋아하지만 밖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벌치나 조개가 들어있는 된장찌개, 젓갈김치 정도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밥 없이 고깃덩이로 배 불리는 것만 하지 않아도 이 시대의 채식주의라 여기는 편이어서 채식에 호기심을 지닌 이들엔 “고기는 반찬일 수 있지만, 밥은 아님이다” 정도로 조언하는 여유가 생겼다.**

서울에서 나와 함께 거리의 마이크를 꼭 잡고, 허기진 배를 식물성으로 채웠던 래퍼 땡이와 한남은 잘 지내고 있 으려나. 내가 제주도로 이주를 한 이후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게 됐다. 홍대 근처의 허름한 카페에서 채식 동호회 사람들과 소소한 파티를 열었을 때가 마지막 무대였는데 아직 제주에 눌러 오질 않는다. 그대들이 오면 제주 언더 그라운드 힙합 래퍼들의 공연을 보러 가야지. 그리고 고사리 김밥을 싸 들고는 내린 용눈이오름에 올라갈 테야. 계란과 어묵은 떼고 고사리의 버섯으로 속을 꽉 채워 주는 김밥 가게를 잘 알고 있거든. ☺





라이카야, 안녕!



『라이카는 말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이민희 작가는 국내 창작 그림책 시장의 보물 같은 존재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겨울에는 꿩 사냥을, 여름에는 냇가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다는, “대학 때는 천문우주학과에서 밤하늘 별을 보며 놀았으며 지금은 포천 산자락에서 남편과 함께 즐겁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놀 듯이 그림책을 만들고 있다는 작가 소개를 보면 이민희 작가의 그림책이 갖는 독특함과 따뜻한 유머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기도 남는 것 같다.

사실 나는 이 책을 알기 전에 ‘동네 개 라이카’를 먼저 알았다. 여기서 ‘동네’의 공식 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줄여 ‘출판단지’라고도 부르고 ‘출판도시’라고도 부르는 곳이다. 출판단지에서 일하던 시절, 마침 내가 일하는 사무실과 근거리엔 ‘드림보’ 출판사가 있었는데, 라이카는 ‘드림보’에서 키우는 삼산개의 이름이다. 성격이 어찌나 말랄하고 구김살이 없는지, 점심시간이나 어찌다 손님이 오셔서 배웅 나가는 길에 마침 산책 나온 라이카와 조우라도 하면, 경경 짖으며 행인인 나에게 와락 달려드는 통에 조금 놀라던 기억, 누군가 건물 뒷산을 향해 공을 던지면 공을 주우러 순식간에 뛰어나가던 녀석의 똥똥똥 귀여운 꼬리, 출판단지를 떠나 온 지금도 가끔씩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장면들이다.

하지만 라이카는 나를 모른다. 밥 주고 산책시키며 살뜰히 돌보는 ‘드림보’ 직원이 아닌 이상 라이카가 옆집 출판사 사람들까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웬지 출판사에서 개를 키우며 돌본다는 사실이 정답고 재미있게 느껴져서 그랬는지, 사무실 앞은 자리에서 창 밖을 내다보다 이따금씩 산책 나온 ‘동네 개 라이카’를 목격할 때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하트 뿜뿜’이 발사되곤 했다. 말하자면 파주 근무 시절의 나는 ‘동네 개 스토리’였다고 할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의 이런 ‘라이카 짝사랑’ 사연을 알게 된 지인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말랄한 멧쟁이 ‘라이카’의 이름인즉슨, 그림책 주인공에게서 따 온 것이라고, ‘라이카 이름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나는 서점으로 달려가 책을 집어 들었다.

이 현장 | 온전 면허 없이 책 만드는 여자 사람, 올해로 11년 차 기획편집자.
취미는 편지 쓰기, 특기는 '정기 출장 및 여행으로 집 비운 친구 집'의 개남 & 고양이님 수발하기

이런! 그림책 주인공 라이카와 '이웃집 라이카'는 생김새가 너무 닮아 있었다. '어쩔 라이카야, 너는 너에게 딱 맞는 이름을 얻었구나!' 이웃집 라이카가 처음 나타났을 당시 털을 다 깎은 상태여서 그랬는지, 마치 그림책 속 라이카가 출판당지에 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림책 『라이카는 말했다』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 최초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러시아 강아지 라이카에 관한 책이다. 1957년 러시아는 두 번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했다. 이 인공위성에 타고 있던 유일한 승무원이 바로 라이카였다. 인공위성은 무게 504킬로그램, 길이 2미터가량의 작은 원통 모양으로 승 쉬기조차 힘든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라이카가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이 탑재되어 있었다. 라이카는 원래 모스크바 거리의 떠돌이 강아지였다. (일설에 의하면 라이카가 우주선 탑승권으로 결정된 건 사람들을 매우 잘 따르며 다른 훈련견들에 비해 영리해서였다고 한다.) 스푸트니크 2호를 타고 우주로 날아간 후 라이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의 떠돌이 강아지가 되었다. 말하자면 우주선 스푸트니크 2호는 애초부터 귀환이 예정되지 않은 편도행이었고 우주선이 발사되는 순간 라이카에게는 7일이라는 시한부 생명이 주어진 셈이었다. 라이카 덕분에 무중력 상태에서도 온도와 습도만 조절되면 지구 생물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미국과 한창 경쟁 중이던 러시아에서는 1961년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상공을 일주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라이카를 모른다. 영문을 모른 채 우주선에 탑승해 원하지 않는 여행을 해야 했던 강아지 라이카에게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기(利器)의 환경을 분명히 빚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주 비행의 영웅 유리 가가린'이나 '스푸트니크 2호'라는 이름은 기억할지 몰라도 인류 우주 비행의 문을 열어 준 모스크바 거리의 바둑이 라이카에 대한 이야기는 드물다.

그림책 『라이카는 말했다』는 이런 라이카를 정성스럽게 기억하는 책이다. 그림책에는 라이카의 시한부 인생 7일 이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나는 책을 볼 때마다, 그림책의 결말대로 저 먼 우주 어딘가에서 귀여운 바둑이 라이카가 따뜻하고 꾸준한 관심 속에 부드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거라고, 바보처럼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우주선에 강제로 태워지는 순간 이 조그만 생명체가 느꼈을 공포와 외로움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 때문인지, 자꾸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진다. 🐾





로드킬 쿠티르, 자동차에 치어 죽은 동물로 만든 옷을 팝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영국 남부의 휴양도시인 브라이튼 중심가에 로드킬 쿠티르(Roadkill Couture)가 문을 열었다. 이 로드킬 쿠티르에서는 차에 치어서 죽거나 자연사한 동물이나 식용으로 쓰고 남은 동물의 사체를 이용해 디자인한 작품을 전시, 판매한다.

디자이너 제즈 이른이 만든 의상에는 펭 두개골로 만든 목걸이, 말의 귀가 달린 모자와 말 꼬리로 만든 액세서리, 여러 개의 다람쥐 꼬리로 만든 숄 등이 있다. 그는 어려서 영국 남부의 시골 농장에서 직접 동물을 키우고 잡는 것을 보고 자란 덕분에 생명의 순환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큰 경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을 기리기 위해서 의상실을 열었다고 한다.

■ 동물의 삶과 죽음을 기리기 위한 윤리적인 작품이다

가디언(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는 모피를 입는 것을 크게 금기시하지만 아름다운 닭의 깃털이나 죽은 동물이 남긴 가죽 등을 유용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리고 있다. 이는 끔찍한 일이다. 슈퍼마켓은 고기로 가득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동물의 죽음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으며, 종종 자신들의 먹고 있는 것이 한때는 살아있던 동물의 일부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컬렉션은 동물이 태어나고 또 죽는 것을 더 피부에 와 닿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윤리적이며 의미 있는 환경 활동이라고 말했다.

■ 윤리적 모피라는 신화를 재창조하는 것은 이런 섬뜩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PETA)은 “로드킬 동물을 재료로 의류를 생산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혐오스럽다. 모피가 윤리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신화를 지속하는 것은 오직 그 섬뜩한 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논평했다.

■ 과연 우리 인간은 동물을 대신해 무엇이 동물의 권리를 위한 일인지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문제는 단지 동물의 사체를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애초에 사체가 재활용되지 않으면 캔이나 종이조각같이 쓰레기로 취급받는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간의 유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쓰레기로 취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죽은 사람을 기린다고 하면서 유해를 옷으로 만들어 입지도 않는다.

이렇다고 할 때 동물의 일부분에 인위적인 약품 처리를 해 써지 않도록 옷장에 보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순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과연 우리 인간은 동물을 대신해 그 동물을 기리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얼마만큼 있을까? ☹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이행주 팀장, 김지영 활동가 | 동물자유연대



영국 닥터무어 동물원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화제를 모은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가 국내에 개봉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모험심 강한 칼럼니스트인 주인공 벤저민은 병마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사한 새 집을 찾는다. 마침내 마음에 속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이 집은 200마리의 동물이 팔린 폐장 직전의 동물원. 고민 끝에 벤저민은 전 재산을 털어 동물원을 매입하기로 결정한다. 야생 동물이나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 아무 전문 지식이 없는 주인공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지만 동물원 직원들과 가족의 도움으로 결국 동물원을 성공적으로 개장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을 맺는다. 그러나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는 개인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일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위협하며,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미국 오하이오 제인스빌(Zanesville)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이던 동물원 주인 테리 뚬슨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멸종 위기 동물인 맹갈호랑이 18마리와 사자 17마리를 포함한 야생동물 50여 마리를 방사해 충격을 안겼다. 뚬슨은 평생 동물과 함께 살아 왔고 동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왔던 모습과는 반대로 2006년부터 동물 학대 혐의로 여러 번 기소되었고, 미화 7만 달러의 세금을 미납하는 등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뚬슨의 사체는 호랑이 등 풀려난 동물에 의해 손상되었으며, 결국 방사된 동물들은 투입된 지역 경찰에 의해 마취 총이 아닌 실탄에 사살 당했다. 이 사건은 개인이 야생 동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야생동물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과 그들을 소유, 관리하는 일은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물원의 경영은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사료, 시설, 전문인력, 수의학적 처치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모든 동물을 사육하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은 동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수의사 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는 성명을 통해 "인





간과 동물이 교감을 나누는 일은 실제와 영화 모두에서 보기 호못한 일이지만 고유의 본성에 따라 사육 조건이 다른 야생동물들을 소유하고 보호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특히 개인이 야생동물을 소유하는 일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회는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수입된 야생동물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에 대한 법적인 재제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영화에서 보이는 동물원의 모습과 실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동물원은 많은 차이가 있다. 각자 기후, 습도, 서식 동물이 다른 환경에서 온 야생동물들을 한 곳에서 사육하는 일은 동물들에게 매우 잔인한 일이며 날거나 자유롭게 뛰거나 헤엄을 치는 일, 먹이를 찾아 다니며 사냥하는 일,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일, 땅 파기, 짹짹까지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해야 할 행동들은 모두 제약을 받는다. 동물들은 정신적 무료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반복 행동, 자해 행위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 사고 등으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영화에서도 노환으로 결국에는 작은 우리 안에서 안락사를 당하는 호랑이 스파크의 모습이 그려진다. 실제로 미국의 '동물원과 수족관 연합(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에 등록된 동물원에서 사망한 코끼리를 중 76마리가 원래 평균 수명인 70살보다 훨씬 못 미치는 40도 안 되는 나이에 사망한다. 이렇게 본연의 습성을 억제당한 채 철창 안에서 살을 이어가는 동물을 관람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에 속한 동물들을 잡아 가두고 고통을 주는 일이 정당하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동물원은 환경 파괴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보호하고 번식시켜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동물원을 경영하는 목적은 동물 보호가 아닌 상업적 영리 추구에 있다. 따라서 멸종 위기 동물이 아닌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동물을 인공으로 번식시키고 그 새끼를 전시하는 일이 흔하며, 인기가 없고 돈이 안 되는 종의 동물은 도축되거나 다른 동물원과 거래되기 일쑤다. 동물의 멸종은 무분별한 남획과 생태계의 파괴가 그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인위적으로 동물을 잡아 가두고 번식시켜서 해결할 일이 아니며, 그들의 서

식지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는 제작 과정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촬영에 이용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람들이 원하는 멋진 장면이 연출될 때까지 영화 촬영에 이용되는 야생동물들은 힘들고 억압적인 과정을 버텨야 한다. 특히 호랑이, 곰과 같은 야생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공격 성향이 강하고 힘이 세 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영화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훈련하는 동물훈련소에서는 전기충격이나 매질과 같은 동물학대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PETA를 비롯한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동물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쇼의 경우는 더 자명하다. 사자들이 불 굴레쇠를 통과하고, 곰이 법를명을 하고, 악어의 입을 벌려 머리를 집어 넣는 모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들의 본 모습이 아니며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는 등의 학대를 통한 끊임없는 반복 훈련으로 가능해진 일이다. 국내에서도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이 <쇼 동물의 그림자-쇼 동물 뒤에 감춰진 진실> 편을 방영해 쇼에 이용되는 동물들에 대한 학대가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대와 인위적인 모진 훈련을 통해 얻어진 동물의 모습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도, 감동적이지도 않다.

실제로 모델이 된 영국의 닥터무어 동물원은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크고 작은 동물원에는 서식지를 벗어나 본래 영역의 수만 분의 일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다. 영화의 결말에서 동물원의 폐장을 막아 동물들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면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해야만 하는 일일까? 처음부터 야생 동물들을 무책임하게 매입했다가 방치해서 위협에 빠뜨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만일 동물원 개장이 불가능했다면 그 동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개인, 관련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





즐거운 외출을 위한 반려견 기본 훈련

이용종 소장 | 이삭애견훈련소

※ 모델로 등장한 개는 행당동 회랑터에서 가장 산책을 기다리는 사랑이입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개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키우는 개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개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것은 어린 시기에 사회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개의 경우 실내에서 쫓거나 분리불안 증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책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며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사회성을 형성시키는 산책 예절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훈련에 필요한 도구 : 목줄, 가슴줄, 리드줄

목줄은 개와 신호를 주고받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목줄을 통한 훈련 없이 처음부터 가슴줄만 사용하면 개의 질주 본능이나 쫓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반려견으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 도구 중 하나가 목줄과 리드줄인데, 줄은 사람과 개의 언어 전달 역할을 하는 통역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줄에 따라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그 가운데에서도 초크체인은 개를 올바르게 통제하기 위한 기본 훈련 도구다. 초크체인을 사용할 경우 개를 억압시키거나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느끼기 쉬우나 초크체인은 적은 힘으로 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호를 주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명심하고 딱 잡아챌다는 느낌으로 사용하면 된다.

목줄을 이용해 개와 신호를 주고받는 법이 익숙해지면 산책할 때 가슴줄(하네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목줄 훈련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슴줄만 사용하면 개에 따라 질주 본능을 통제할 수 없거나 쫓는 버릇이 생기기도 하는데, 종종 이런 훈련 부족으로 인해 주변의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리 적절하게 목줄 훈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목줄, 가슴줄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리드줄이다. 길이에 따라 쓰이는 용도가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훈련에는 1m20cm의 길이가 적합하다.





자율성을 줄 때에는 신나게 놀아주되 개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명확하게 지적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

자, 기본적인 도구의 활용법을 알았으면 본격적으로 산책 예절을 배워보자. 개와 함께 산책을 할 때 개가 사람보다 앞서는 행동은 개의 상식으로는 개가 리더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을 무시하기 쉽고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율성을 줄 때에는 신나게 놀아주되 개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명확하게 지적하고 훈련해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산책을 즐기도록 하자.

공공장소에서의 통제를 위해 미리 방식을 이용한 포인트 훈련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갔을 때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때 특정 공간을 설정해 그 공간 안에서는 개가 편안하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도록 미리 배운다면 공공장소에서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왔을 때 심하게 짖는다면 이 훈련이 도움이 된다. 리드줄, 초크체인, 방식(포인트)과 간식을 준비하고 훈련 시작!

- 먼저 방식에 간식을 놓고 이 공간(방식)에 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좋은 기억을 인지시키며 칭찬을 한다. 이때 명령어는 "옹지!" 정도가 좋겠다. 처음엔 개가 스스로 방식을 찾아 갈 수 있게 반드시 리드줄로 경로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방식 위에 갔을 때 "엎드려", "앉아"를 시키고 난 후 간식을 이용해 칭찬을 한다.
- 방식 위에서 기다려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 조금씩 기다리는 시간을 늘려간다.
- 기다리는 시간을 늘리는 훈련과 함께 개와 조금씩 더 먼 거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연습을 한다.

※ 응용: 방식대신 이동용 케이지를 함께 활용하면, 그 공간 안에서는 개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다려 훈련은 개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따르지 않을 때에는 즉시 제지하고, 잘 따르면 즉시 보상한다. 또 처음에 개를 부를 때는 멀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곳으로 다가가서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난 후에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점을 주의해 적절한 훈련을 한다면 보호자도 반려견도 이웃들도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활동소식

삼살개 보리를 쇠파이프로 구타한 동물학대범 엄중처벌 탄원서 제출



지난 11월2일, 강릉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남의 집 담을 넘어와 철창 안에 있던 3살 된 삼살개 보리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1급 장애건으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 강릉지부에서는 아고라 서명 등을 첨부해 강릉경찰서 강력계에 탄원서를 제출해 보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하프물범 살리기 거리캠페인 및 캐나다 영상관에 사냥 중지 요청문 발송



11월23일에는 명동 사거리 앞에서 하프물범 살리기 서명운동을 비롯해 핏자국을 덮는 퍼포먼스, 하프물범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주한 캐나다 영상관에 하프물범 사냥 중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도 발송했다.

청계천 관광마차 중단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및 언론 보도 진행



말을 이용한 관광마차가 교통량이 많은 종로 주변 대로까지 운행되고 있다. 이는 말에게 과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염려와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11월9일부터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고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다.

곰 크림 판매 중단 요구



곰의 체지방으로 만든 곰크림의 판매는 불가피하지 않은 소비를 통해 소수의 이윤을 채워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자유연

대는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고통스럽게 살다가 도축당하는 곰의 사육 실태를 알리는 한편 곰 크림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겨울철, 길고양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리 캠페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길고양이들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많은 수난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12월3일 정오 무렵, 20여명의 지역 캣맘들과 함께 거

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캠페인이 필요한 지역을 전국적으로 접수해 거리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다.

상명대 공연영상미술학부 학생들과 함께 한 모피 반대 캠페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모피 코트와 가방에 쓰이기 위해 희생되고 있다. 상명대 공연영상미술학부 학생들은 이렇게 인간의 사치와 향락을 위

해 무차별하게 희생되는 동물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모피 반대 퍼포먼스'를 기획해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명동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송아지고기 산업화 중단 등의 집회 진행



1월 16일(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동물자유연대를 포함한 '소 파동의 인도적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모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소 값 파동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송아지고기 산업화 정책, 40만 마리의 암소도축, 처녀 암소 브랜드화 정책 등을 반대하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2011년 동물보육원 건립을 위한 후원자의 밤



지난해 11월 25일 저녁, 윤영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육원 건립을 위한 후원자의 밤'이 진행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올리는 특별히 '이효리와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과 배다해, 이랑밴드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동물보육원 모금 현황 -가수 이효리 동물보육원 건립 기금으로 1억 기부

평소 우리나라의 열악한 유기동물 보호소 현실을 전하며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 이효리님이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육원 건립 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으로 '이효리관' 건립을 검토 중이며 이효리관은 보다 많은 보호 동물들이 다시 입양될 수 있도록 치료하고 관리하는 보호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래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가나다순). 전체 후원자 명단과 내역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살림공개 게시판에 고지됩니다.

■ 한달음 후원(1구좌 100만원 이상)

(주)보그레머 김옥경 까비(문현숙) 브레드앤버터 설지영 이효리 이혜영 Jaehoh Yim 후원의 밤 모금

■ 땅한평 후원(1구좌 30만원 이상)

강원숙 김원란 김지연 송혜원 이자준

■ 맛들기 후원(1구좌 5만원 이상)

권지은 김남경(칸이네) 김대수 김대수 김민희&김주연 김보미 김보미 김수현 김수희(81년 2월생) 김세진 김영화 김은정 김예진 김원란 김원란 김주연 김지아보호소건립 동물보호소후원 돌이 누나 류소영 마송연-034 박순현 박순옥 박지현 박지현 박혜림 방병일 보호소후원금 서연경 서유미 손은진 송명희 송지현 심숙경 심정은 오수진 오수진 오진아 유미경 유제택 윤정원 윤지혜 윤지혜 이새롬 은성진 이선미 이선민 이연구 이연구 이윤고 이현옥-071 작은도움 장재명 전영미 전영미 전영희 전영희 정서영 정성훈 정은선 정현주 조금이라도부디 조성희 주영 최고은 최고은 최선영 최성배 토토명명 한송희 홍지혜 황수경 힘내세요 1047545423



일곱 빛깔

아기 야옹이들의 가족 찾기~!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즐기는 하지만 두툼한 외투에 목도리와 장갑으로 무장하고 칼 바람을 뚫으며 따뜻한 찻집에 도착해서 반가운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또 뜨끈뜨끈한 이불 속에서 뒹굴며 포근함을 즐긴다거나, 평평 내리는 눈밭에서 낭만을 만끽하기도 하는 등 겨울 추위는 사람들에게겐 행복한 추억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길 위의 생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추적추적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거나 눈이 올 때면 가여운 동물들 생각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마 우리 동물자유연대 회원들도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테지요?

특히 유일하게 어미고양이만을 버림목 삼아 살아가는 길 위의 생명, 아기고양이들에겐 더욱 더 혹독한 계절이 바로 이 겨울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미고양이라도 살아서 아기들을 지켜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기들을 키우기 위해 먹이를 구하러 나간 어미고양이들에게도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서 겨울 동안 많은 길고양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겨우 겨울을 두세 번 보내는 짧은 삶을 살고는 세상과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로 어미를 잃고 행당동에 둥지를 튼 일곱 마리 아기냥이 두비, 한비, 토리, 일홍이, 이홍이, 삼홍이, 사홍이를 소개합니다. 이제 어미를 잃은 이 아기 고양이들이 기댈 품은 여러분뿐입니다. ☺



(2012년 2월 현재 이홍이, 삼홍이, 사홍이, 두비는 입양되었고 일홍이는 암타깝게도 무지개다리를 걸녔습니다.)





삼총사의 카리스마 리더 형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둥글둥글한 성격의 캄식이, 형아와 캄식이 뒤흔다꺼리에 바른 막맹이, 행당동엔 요렇게 각자의 개성이 확실하지만 뭉쳐서도 전혀 분란이 없어서 흠어지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각별한 삼총사가 있습니다. 녀석들의 끈끈한 우정을 보고 있다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정을 과시하고 있는 삼총사의 일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동물 상식

		①			④	
					⑤	
②	③					
					⑥	
			⑦			
	⑧					



※ 함께 나누는 삶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재미있고 유익한 가로세로말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다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응모자 이름 :

• 연락처 :

• 주소 :

■ 세로열쇠

- 1) 검은 갑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탄 기사. 신분을 숨긴 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몰래 구해줍니다.
- 3) 가로로 넓적한 마름모 모양이고 꼬리가 긴 근해어로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암컷의 몸 안에서 알이 수정된다고 해요! ○○○○을 낳린다고도 하죠.
- 4) 물뚝뚝이라고도 하며 주로 아프리카 서부의 강이나 호수 주변에 살고 있어요. 육지동물 가운데 코끼리, 코뿔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동물입니다.
- 6) 차가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 전용 도로. 여기서 로드 킬을 당해 죽는 야생동물들이 아주 많아요. π π
- 7) 1만 년 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동물이에요. 날카로운 발톱을 살 속에 감췄다가 필요할 때만 펴기도 하죠. 장화 신은 ○○○.

※ 정답 인증사진을 3월25일까지 이메일 eunhee@animals.or.kr이나 트위터 [@animalkorea](https://twitter.com/animalkorea)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5분을 추첨해 책공장 더블어의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 책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4월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발표)

■ 가로열쇠

- 1) 2012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의 해라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마구잡이로 잡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해저로 질질 끌고 들어간다고 해요. 참치나 장어, 대구, 킹크랩 등 생각보다 많은 어종이 남획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 2) 몸은 별 모양으로 보통은 다섯 개의 팔이 있는 바다 생물. 어민들이 채집하는 조개 등을 먹어치운다고 무차별 포획되고 있는데, 아무로 ○○○○을 제외한 대부분은 바다의 부영양화를 막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찬! 이 동물의 입은 아래에, 항문은 위에 있답니다!
- 5) 빛과 소음에 민감한 말을 이용해서 청계천에서부터 종로까지 딱딱한 아스팔트길을 달리는 광경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비롯해 여러 지역 관광○○ 이용을 자제하면 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
- 7) 등 전체에 바늘 같은 가시가 있어요. 위험이 닥치면 몸을 방울이같이 만들어 자신을 방어합니다. 요즘 애완동물로 구입했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도 보호 중이에요. 가족이 되어 주실 분 누구 안 계산가요?
- 8) 반려견 ○○○와의 일상을 담은 2012년 이호리 달력. 전액 우리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원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여러분도 구입하셨어요?

후원해 주세요



동물과 인간은 서로 공존하며 자연의 어우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희생되기도 합니다. 정서가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 인생의 동반자로서는 물론, 인간의 식생활을 위해, 또한 생활용품, 오락, 의학, 과학 개발의 현장 등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론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가 이 동물들의 고통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한 그 이용당하는 동물을 돌보는 일은 최소한의 의무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써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고통을 호소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동물들의 절규, 끝없는 동물 이용,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한 가치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일, 여러분들의 동참이 있어야만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부당한 처우와 고통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 하는 동물들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후원인으로 함께해 주세요.

후원계좌 _ 국민은행 806201-04-005468 / 농협 015-17-002592

정기후원방법

- 이 면을 작성하여 절취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http://animals.or.kr>로 접속하셔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2-2292-6337, 팩스번호 02-2292-6339 (전송 후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휴대폰 _____

주 소 _____ 전 화 (집/회사) _____

자동이체계좌번호 _____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기재 _____

후원금액 _____ 자동이체 날짜 _____ 5일 ☐ 14일 ☐ 23일 ☐ (확인 요망)

* 우리 단체는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hBoy!

Contemporary Culture & Mother Nature
Fashion. Interviews. Photography. Environment.
Monthly Cultural Magazine from Seoul



환경과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패션문화잡지

오보이!

오보이!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패션, 문화 잡지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통해 자신을 아끼는 만큼 타인과 환경도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잡지를 만듭니다.

패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과시의 발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타적인 생활을 위한 작은 수단이라고 오보이!는 믿습니다.

오보이!는 모피사진을 실지 않으며 가죽제품의 노출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합니다.

공정무역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선호하며 친환경기업의 정신을 지지합니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오보이!는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며 수익의 일부는 동물복지를 위해 기부 됩니다.

Blog at <http://ohboyzine.eglo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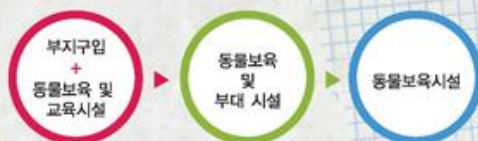
Twitter at <http://twitter.com/ohboyzine>

굿독굿컴퍼니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6-9 B1 / 02-541-4262 02-541-4263 fax 02-541-4264

gooddog goodgod company 16-9 B1 KANGNAM GU CHUNGAM DONG 135-100 SEOUL, KOREA / Tel 822 541 4262 Fax 822 541 4264

동물보호소 건립 기금 모금

위기의 동물들에게 피난처를!



보호소 건립 예상비용 및 목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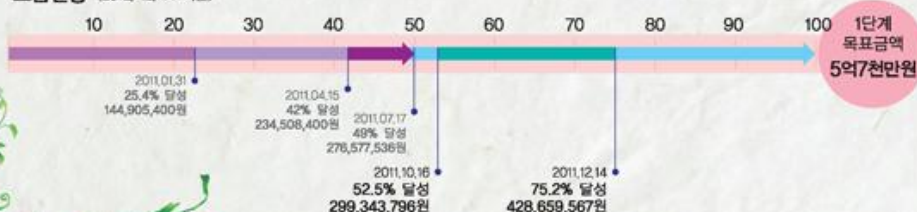
8억 2천 만원

동물 수용 능력 :

상시 213마리 (3개동, 개 141마리/고양이 72마리)

연간 마리 예상 (구조, 입양, 사망 순환)

모금현황 (2012. 12. 14 기준)



여러분의 후원을 바탕으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계좌

국민은행 806201-04-167810 | 우리은행 1005-300-904769

농협중앙회 301-0059-6623-11 예금주 (사)한국동물복지협회

